

“패륜 발언” 김종민, ‘노무현 불량품’ 발언 감싼 이재명 직격

“김대중·노무현 정신 계승한 민주당 대표로 역대급 막말·패륜 발언” 이재명 당 대표 “정치인의 비판은 표현의 자유… 제 욕 많이 하시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같은 당 총선 후보의 ‘노무현 불량품’ 발언을 감싸자 세종시 갑에 출마한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가 “말파 행파(말 따로 행동 따로)를 멈춰야 하며 선거를 위해 노무현 정신을 내세우면서 여기에 침묵하는 민주당 후보들은 노무현 정신을 이어갈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17일 김 후보는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가 노무현 불량품 발언을 한 민주당 양문석 후보에 대해 ‘표현의 자유, 뭐가 문제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믿어지지 않으며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민주당 대표로서 역대급 막말이자 패륜 발언이다”며 “개팔로 불리는 이재명 홍위병이 욕설 테러로 당내 인사들을 ‘윤석열 대통령 경호 과정에서 나온’입틀막’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경호원의 ‘입틀막’과 이재명 개팔의 ‘입틀막’이 뭐가 다르냐”고 물으며 “말파 행파(말 따로 행동 따로)를 멈춰야 하며 선거를 위해 노무현 정신을 내세우면서 여기에 침묵하는 민주당 후보들은 노무현 정신을 이어갈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춘추관장과 대변인을 지내는 등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패한 불량품’이라고 비하했다는 논란에 대해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라고 감쌌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하남시 신장시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의 권리 아니냐’라고 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비난했다고 자신을 비난한 정치인들을 비판하거나 비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 역시 마찬가지로 저에 대해 온갖 험악한 언행으로 당내 인사가 많지만 제지하면 끝이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며 “제 욕 많이 하시라. 뭐라고 안 한다. 우리는 막 물어뜯겨도 된다. 물어뜯는 것도 재미 아니냐. 안 보는 데서는 임금 욕도 한다”고 했다.

다만 “표현의 자유는 그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차이”라며 “이 나라 주권자인 국민을 폄



해하거나 소수자, 약자 비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에 비유한 데 대해 16일 사과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저의 글에 실망하고 상처받은 유가족과 노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많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적었다.

김희면기자

한동훈 “민주당, 후진세력…국힘은 미래 전진 정당”

“범죄세력 연대가 국회 장악하는 것 막아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열린 첫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4·10 총선을 ‘국회 심판 선거’라고 규정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조국, 통진당의 후예들이 뭉친 후진 세력들의 탄핵 본색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전진하는 정치개혁 정당”이라며 “후진 민주당 세력이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는 일만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본인 방탄을 위한 조국 세력, 대한민국 안보를 직격하는 통진당 후에 세력까지 과거보다 더욱 독해졌다”며 “어떤 세력에 나라 맡기시겠습니까.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중요한, 이 나라의 운명이 달린 선거가 4월10일 선거”라고 전했다.

야권을 겨냥해서는 “이 대표의 민주당은 벌써 153석 플러스 알파라면서 삼패인을 터트리

는 분위기이고, 이익 동맹인 조국 대표도 야권의 200석을 입에 올리면서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3년 이상 임기가 남은 대표에 대해 해고하자라면서 공공연히 탄핵을 하겠다고 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서 겨우 한 줄이라고까지 했다”며 “이 대표의 민주당, 조국, 통진당의 후예들이 뭉친 후진 세력들의 탄핵 본색이 드러난 것이고 진짜 목표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야합한 세력들이 지난 4년간 입법독재를 하면서 얼마나 오만하고,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지를 알 수 있다”며 “이런 범죄세력의 연대가 다음 국회까지 장악해 난장판을 펼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은 지난 4년간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만든 난장판을 심판하는 국회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민생이 어떻게 되든 간에 대표의 묻지마 방탄에만 올인한 후보로, 친명 일색으로 다음 국회를 구성하고 있다”며 “대표의 배후자 비서를 후보까지 기어코 공천하는 이 대표의 사당이지 더이상 공당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를 심판하자고 국민에게 호소하겠다”고 했다.

서선욱기자

설훈·오영환, 새로운미래 동반 입당

현역 5명으로 늘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설훈·오영환 의원이 17일 새로운미래에 동반 입당했다. 새로운미래에 합류한 현역의원은 5명으로 늘었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설훈·오영환 의원 입당식을 열었다.

김종민 공동대표는 “새로운미래 당세가 확장됐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며 “두 분은 중요 정치와 적대 정치의 소방수가 돼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민주주의가 흑백 간 싸움이 아니길, 칼라라는 것을 꼭 보여주고 증명하는,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상임선대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단을 해준 두 의원에게 감사하다”며 “특히 오 의원의 새로운 정치를 향한 소중한 결단과 그 용기에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홍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보는 국민의힘과 이재명 대표가 모든 것인 민주당이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국민의 아픔을 깨닫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새로운 정치를 만들고자 새로운미래의 밑거름이 되는 결단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내 편이 아니라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정치와 국민을 절망하게 하고 있다”며 “새로운 미래가 바뀌겠다. 김대중·노무현 정신

을 계승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가치를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여야 거대정당의 증오와 갈등의 정치 속에서 대화는 단절되고 모욕과 조롱으로 가득 찬 선거상황은 국민에게 정치 환멸과 피로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오늘날 정치 현실에 책임을 가장 먼저 느낀다”고 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민주당의 현실에 많이 분노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다”면서도 “민주당 안에서 소중한 가치와 철학, 품격을 잃는 것을 막지 못한 데에는 그 구원이었던 우리에게도 역시 일부 공조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적은 민주당이 아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가장 큰 적은 국민의 고통이며 정치에 대한 실망”이라며 “소중한 가치와 철학, 역사를 지켜온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계승합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태도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모욕과 비난, 갈등과 분노의 정치에서, 우리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이자”고 힘줘 말했다.

설 의원은 동반 입당한 오 의원을 추켜세웠다. 그는 오 의원을 두고 “이 지도자를 정말 지도 반열에 올려서 우리 새로운 민주당은 새로운 미래는 물론이고 범야권 전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로 우뚝 세워달라”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